

IMA 떠난 윤병운 연임 탄력... NH투자증권, 체제 개편 변수

(대표)

IMA 인가로 '초대형 IB 경쟁' 진입 IB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 구축 구상 실적 개선·체질 변화 추진 '성과' 각자·공동대표 체제 아직 미정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확보하며 사업 구조 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 초대형 투자는 행(IB) 경쟁의 핵심 축으로 올라선 동시에,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인가는 자금조달·자산관리·기업금융을 연결하는 '플랫폼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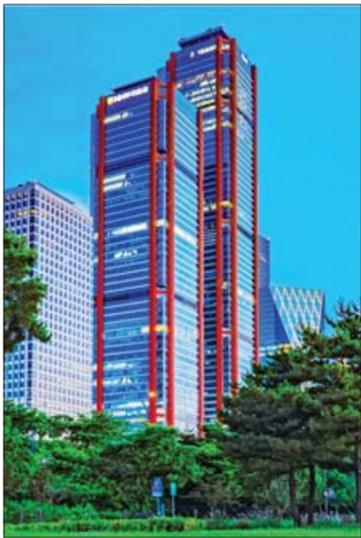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NH투자증권을 국내 3호 IMA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증권업계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함께 'IMA 3강 구도'로 형성됐다. NH투자증권은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WM)를 동시에 갖춘 만큼, 리테일 자금 유입과 기업금융 투자 역량을 결합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IMA를 통해 '대기자금' 흡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예금 대비 낮은 금리에 불만을 가진 자금과 증시 변동성을 부담스러워하는 수요

를 동시에 겨냥해, WM 자금을 IB 투자로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IMA 1호 상품은 약 5000억원 규모, 만기 3년의 폐쇄형 구조가 유력하다. 기존 수익률은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에서 설정하되, 운용 성과를 통해 실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운용 전략은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다. 인수금융, 브릿지론, 기업대출 등 IB 자산 중심으로 운용하되, 자산 선별과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발행어음 운용 경험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사옥

/NH투자증권

◆실적·전략·위기관리...윤병운 리더십 '증명'

이번 인가는 윤병운 사장의 경영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윤 사장은 취임 이후 실적 개선과 체질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NH투자증권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결 기준 순이익은 취임 전 6000억 원대에서 1조원대로 확대됐고, 브로커리지·WM·기업금융 등 전 사업부문

에서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정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익 체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IMA 인가의 핵심 요건이었던 자기 자본 8조원 역시 윤 사장 체제에서 해결됐다. 자본 확충을 통해 인가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일부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감독 당국 조사를 받으며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윤 사장은 직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임직원 주식 거래 제한, 가족계좌 관리 강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이 인가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업 전략, 재무 기반, 위기 대응까지 '성과 3박자'를 갖췄다는 점에서도.

특히 IMA를 직접 설계하고 추진해 온 점도 주목된다. 단순히 인가를 따낸 것을 넘어 향후 사업 방향까지 주도해 온 만큼, 초기 안착 단계에서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IMA 사업자 지정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자본시장 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전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유망 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자본시장의 성장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속성 있는 리더십 vs 체제 개편

다만 대표 체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주주총회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나 각자대표, 공동대표 등 경영체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기존 단독대표 체제 유지에 무게가 실리는 시각도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사실상 '원톱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 명확성 측면에서 단독대표 체제의 장점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표 체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가·금리 변수... 외평채 '긴장 속 안정'

외평채 스프레드 20bp대 유지 CDS 프리미엄 상승... 리스크 반영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도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스프레드는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치고 있다. 신용 부도스와프(CDS)는 상승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지만, 외평채 스프레드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신용시장 충격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 장기화와 유가 변수에 따라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외국환평형기금채권 스프레드는 최근 한 달 동안 20bp(bp=0.01%p)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였던 지난달 28일에도 전일 대비 3~4bp 상승하면서 비교적 제한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은 최근 한 달 동안 20bp 초반에서 후반까

지 상승하며, 단기 리스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CDS는 원화 약세 등 환율에 영향을 받지만, 외평채 스프레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신용 리스크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두 지표 간 온도 차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선경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외평채 스프레드는 전쟁 직후에는 반응이 제한적이었지만, 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등으로 3개월 후 10bp 확대된 바 있다"며 "중동발 불확실성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리스크 오프(risk-off) 국면 심화에 따른 한국물 스프레드 변동성 확대 및 조달여건 악화가 나타날 소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경우 미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벌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 10년물 국제금리는 4.3%

에 근접하며 금리인상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사모대출 시장 불안 우려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프리미엄 요구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진 만큼, 향후 미 국제금리 경로도 크레딧 스프레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까지 스프레드 확대 폭이 제한적인 만큼, 최근 움직임을 글로벌 크레딧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동 범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1~2년간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3~5bp 수준의 움직임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외평채 스프레드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달러채 발행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수준은 조달 여건에 의미 있는 부담을 줄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신탁사에 리스크 선제 관리 주문

CEO 간담회 열고 구조 개선 요청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정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와 수익성 악화, 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신탁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계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신탁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CEO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GT타워에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운데) 등 임직원과 주요 고객들이 IBKS 패밀리오피스 오픈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투자증권

중기 특화 'IBKS 패밀리오피스' 출범

기업승계 지원 솔루션 제공

IBK투자증권이 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에 특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IBKS 패밀리오피스'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IBKS 패밀리오피스는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의 고객 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와 가문의 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다. 특히 IBK금융그룹 시너지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로서의 자산관리 및 솔루션 역량을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하은 기자

대신증권, MTS로 랩 상품 쉽게 찾는다

출시일·가입금액 기준 정렬 가능

대신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랩(Wrap)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 MTS 사이보스·크레온 홈

화면의 '상품/연금' 탭에서 다양한 랩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일과 가입금액 기준으로 상품을 정렬해 비교할 수 있어 투자 목적과 자금 규모에 맞는 상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MTS에서 조회되는 랩 상품은 대신증권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랩 상품은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위탁 받아 투자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형태로 운용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개별 종목을 직접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증권은 리서치센터의 시장 분석과 자산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랩 상품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